



소외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

은행 Weekly | 2026.1.5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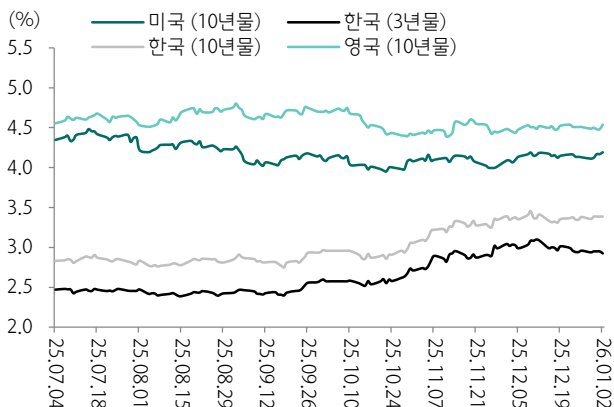
- 정부가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입법에 속도. 1,500~2,000만 원선에서 보상 한도가 정해질 전망.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
- 은행이 각종 특판상품을 내놓는 반면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을 축소하면서 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 금리가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아짐. 1금융권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예금금리는 전월대비 0.24%p 상승한 반면 저축은행은 0.04%p 하락
- 금융당국이 치매머니 보호를 위해 신탁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재산범위 확대, 위탁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탁업활성화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조속한 처리 요청에 이어 이번 당국의 의지에 반색하는 분위기
-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핀테크업계의 서비스 위축 우려가 확대.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움직임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저축은행이 수수료를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작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1월 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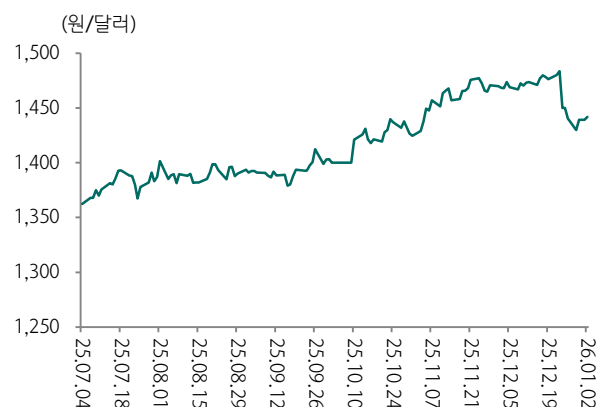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2025~)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61	28.6	5.6		3,558,736.5	4.4	6.8	21.4	79.6	-937.2	-90.1	491.7	485.7
은행	0.61	7.04	8.79	0.62	170,014.9	-0.9	-3.5	6.6	58.2	-12.5	-23.5	27.5	2.6
KB 금융	0.74	8.16	9.29	0.71	47,034.3	-1.0	-6.4	5.6	48.7	-17.8	-16.9	21.6	-2.1
신한지주	0.64	7.97	8.93	0.65	37,188.9	-0.3	-4.1	7.3	60.8	-2.1	-9.3	9.3	-6.9
우리금융	0.57	6.39	9.21	0.58	20,590.8	-0.9	-1.6	7.7	82.5	-0.9	2.6	2.6	-1.2
하나금융	0.59	6.51	9.03	0.61	25,995.6	-0.4	-2.7	5.7	64.4	0.2	1.8	3.0	-3.2
기업은행	0.47	6.15	7.75	0.56	16,546.6	-2.1	-0.5	7.2	44.8	-0.1	0.4	-1.2	1.7
BNK 금융	0.46	5.96	7.67	0.54	4,945.9	-1.7	0.8	7.1	52.1	1.9	-1.8	1.3	12.0
이M 금융	0.39	5.31	7.56	0.47	2,481.1	-1.4	5.3	12.2	87.2	-0.2	-1.5	-1.9	1.8
JB 금융	0.78	6.72	12.19	1.03	4,785.1	-3.3	1.2	7.9	54.8	6.5	1.3	-7.2	0.7
카카오뱅크	1.52	22.08	7.07	0.72	10,446.6	1.4	-0.2	-7.4	4.0	3.8	-0.1	2.0	-5.4
삼성카드	0.72	9.92	7.36	2.07	6,291.1	-3.0	-0.2	7.3	37.6	2.3	0.3	-1.5	-0.1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에도 은행주는 0.9% 하락해 KOSPI 상승률 4.4% 대비 큰폭의 초과하락세가 이어짐. 연말연초 특이 이슈는 없는 가운데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은행주 매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서 매매동향도 큰 특이점이 없었으며 IT 급등에 따른 KOSPI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주 소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 12월 FOMC 회의에서 비투표권 연준 위원 7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새해초 연준이 매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었고,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12월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기 때문.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0%로 한주동안 7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48%로 보합세를 유지. 국내 국채금리는 혼조 양상.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39%로 2bp 상승한 반면 3년물 국채금리는 2.94%로 한주동안 2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입 경계감이 지속됐지만 연말 환율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 등이 유입되었기 때문. 결국 원/달러 환율은 1,444.7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5원 상승했음. 지난주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9,370억원과 125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4,920억원과 275억원 순매수. 국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은행주에 대한 순매매 규모가 크지 않아 뚜렷한 매매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음
- 전주에는 이렇다할 특징주가 없었지만 JB금융과 기업은행의 주가가 소폭 더 하락. 이는 타행들과는 달리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한 점이 주요 이유로 추정. 반면 외국인은 지난주 KB금융을 220억원 순매수해 오랜만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그동안 비중축소 폭이 너무 컸던데 따른 저가매수 유입으로 추정. 외국인들은 4분기에만 KB금융을 8,800억원을 순매도해 은행업종 전체 순매도액 1.3조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타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도 보유 비중을 더욱 크게 축소해왔기 때문임
- 11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4%로 전월대비 11bp나 하락한 반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19%로 1bp 상승.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급락은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22bp나 상승했기 때문. 시중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13bp 상승했지만 증권사 IMA 영향 및 연말 자금유치 경쟁으로 인해 수신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임. 다만 연초 이후 수신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 NIM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 NIM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수신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잔액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은행 4분기 추정 순익은 약 2.7조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약 3.7% 증가하는 나름 선방하는 실적 시현 예상. 우리의 4분기 순익 추정치에는 홍콩 ELS 과징금과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예상치 약 1.1조원이 반영된 것인데, 물론 홍콩 ELS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은 부과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과징금 관련 비용을 어느정도 미리 인식해 놓지 않으면 2026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4분기 손익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도 여타 항목들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따라서 과징금을 회계상 2025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4분기 손익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손익이 우리 추정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4분기에 비용 선처리, 이에 따라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 은행주 주가가 밋밋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징금 손익 반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추후 과징금 최종 규모 확정시 투자심리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우려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 실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대상기업이 되기 위한 결산 DPS 상승, 상법개정안 1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등이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은행주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만약 연초 이후에도 환율이 안정화될 경우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주가 상승이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외 현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하나금융(매수/TP 130,000원), KB금융(매수/TP 178,000원)

- 하나금융은 3분기 CET 1 비율 하락으로 경쟁사와의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연말 환율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가도 결국 반응할 것으로 판단
- KB금융은 4분기에도 강력한 경상 펀더멘털 재확인 예상. 홍콩 ELS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우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 우려만 해소될 경우 투자심리 큰폭 개선 예상.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데다 최근에는 유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Global Peer Table

(2026년 1월 2일 종가 기준)

	PBR	PER	ROE	ROA	Mkt. Cap.	Performance (%)			
	(2025F)	(2025F)	(2025F)	(2025F)	(bil.)	1W	1M	3M	YTD(2025~)
KOSPI	1.61	28.6	5.6		3,558,736.5	4.4	6.8	21.4	79.6
은행	0.61	7.0	8.8	0.62	170,014.9	-0.9	-3.5	6.6	58.2
KB금융	0.74	8.2	9.3	0.71	47,034.3	-1.0	-6.4	5.6	48.7
신한지주	0.64	8.0	8.9	0.65	37,188.9	-0.3	-4.1	7.3	60.8
우리금융	0.57	6.4	9.2	0.58	20,590.8	-0.9	-1.6	7.7	82.5
하나금융	0.59	6.5	9.0	0.61	25,995.6	-0.4	-2.7	5.7	64.4
기업은행	0.47	6.2	7.7	0.56	16,546.6	-2.1	-0.5	7.2	44.8
BNK금융	0.46	6.0	7.7	0.54	4,945.9	-1.7	0.8	7.1	52.1
iM금융	0.39	5.3	7.6	0.47	2,481.1	-1.4	5.3	12.2	87.2
JB금융	0.78	6.7	12.2	1.03	4,785.1	-3.3	1.2	7.9	54.8
카카오뱅크	1.52	22.1	7.1	0.72	10,446.6	1.4	-0.2	-7.4	4.0
삼성카드	0.72	9.9	7.4	2.07	6,291.1	-3.0	-0.2	7.3	37.6

미국

S&P 500	5.31	25.7	18.9	4.68	60,918.0	-1.0	0.5	2.4	0.2
은행	1.71	14.5	11.8	1.06	2,199.1	-0.7	7.8	10.9	31.7
Wells Fargo	1.80	16.1	12.3	1.07	298.8	-0.1	10.3	18.9	35.6
JPM	2.57	16.1	16.8	1.30	886.0	-0.7	5.7	6.3	34.8
CITI	1.08	15.2	7.6	0.58	212.4	-1.4	15.0	22.7	68.9
BOA	1.46	14.7	10.5	0.89	408.6	-0.4	5.7	11.4	26.6
US Bancorp	1.46	11.9	12.9	1.09	83.8	-1.0	9.6	13.7	11.4
PNC	1.53	13.3	12.2	1.15	82.9	-1.1	10.1	7.7	9.4
BB&T	1.05	12.6	8.6	0.98	63.6	-1.7	7.0	10.9	13.9

중국

상해A주지수	1.46	15.4	9.6	1.41	62,811.0	0.7	2.3	2.7	23.6
은행	0.75	7.8	9.7	0.72	12,475.8	0.9	-1.8	10.6	12.2
공상은행	0.72	7.9	9.3	0.72	2,631.5	0.3	-0.4	10.6	18.2
건설은행	0.70	7.2	9.9	0.80	1,878.4	1.2	-1.9	10.0	9.6
농업은행	0.97	9.9	9.8	0.64	2,612.5	0.5	-3.0	17.0	49.1
중국은행	0.69	7.8	9.1	0.67	1,706.9	1.1	-3.8	12.7	7.1
교통은행	0.56	6.8	8.4	0.62	592.8	0.6	-2.4	10.2	-2.4
초상은행	0.93	7.2	13.1	1.19	1,089.0	0.6	-2.0	4.2	8.9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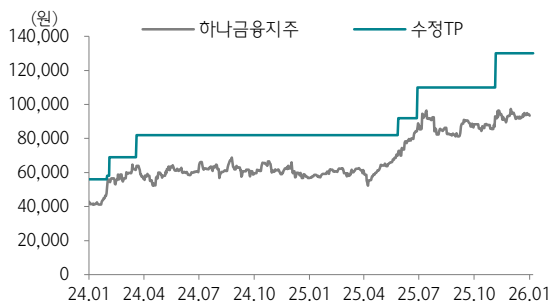
NIKKEI	2.42	20.1	11.6	3.86	864,892.8	0.0	0.3	12.1	26.2
은행	1.17	14.2	8.2	0.40	99,704.3	-0.9	4.6	11.6	40.6
Mitsubishi UHF	1.32	13.0	10.6	0.57	29,586.2	-0.9	2.9	2.8	35.0
Sumitomo Mitsui Financial	1.25	12.6	10.2	0.60	19,445.2	-1.7	7.3	20.7	33.9
Mizuho	1.27	12.5	10.7	0.41	14,192.1	-1.2	4.1	14.3	47.2
Sumitomo Mitsui Trust	1.02	11.3	9.3	0.40	3,369.6	0.3	5.7	11.1	29.5

유럽

MSCI Europe	2.32	16.9	12.7	1.55	14,536.7	1.3	3.5	5.1	17.6
은행	1.42	11.3	12.6	0.66	1,884.7	2.1	8.0	17.0	71.6
HSBC	1.60	11.2	12.7	0.76	204.7	1.4	9.6	15.0	53.9
Santander	1.51	11.5	13.2	0.77	152.6	2.6	8.7	19.9	134.9
BNP Paribas	0.77	8.1	9.7	0.41	91.5	1.7	9.1	5.7	41.5
Credit Agricole	0.75	8.2	9.5	0.26	53.8	1.4	5.6	5.0	36.0
Deutsche	0.99	11.1	8.9	0.48	64.4	1.2	8.4	12.1	100.6
Unicredit	1.67	10.8	16.6	1.23	110.7	1.6	8.7	14.6	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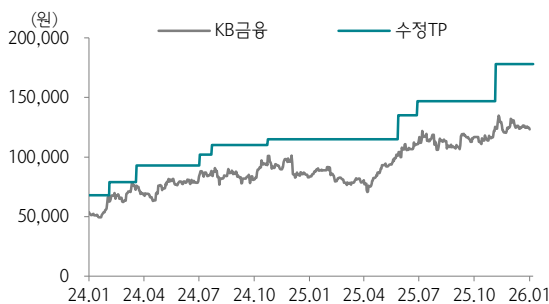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하나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30,0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1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3%	4.27%	0.00%	100%

* 기준일: 2026년 1월 2일